

사부대중 칼럼

사지 보존, 성보를 되살리는 불사

불교문화재연구소의 '사지 조사 사업' 결과 체계적인 보존관리가 필요한 옛 절터와 그 절터에 소재한 문화재 관리가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전국적으로 추정되는 옛 절터는 5400여 개. 대부분이 흔적조차 찾기 힘든 곳들로 변했지만 이들 중에는 역사적인 기록과 함께 문화재적 가치가 높은 유물이 남아있는 곳도 적지 않다.

이런 가치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옛 절터는 부처님 법을 따르던 역대조사 스님들이(선조들)이 수행하던 곳이란 점이다. 단순히 불교관 종교적 공간을 넘어 그 당시 불교를 매개체로 이어진 수행상(생활상), 사유체계 등 사회문화의 흔적들이 바로 옛 절터다.

옛 절터와 관련된 가장 큰 문제는 국민 대부분이 문화재를 비롯한 옛 문화의 소중함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를 진행하며 절터와 소재 문화재들이 인위적으로 훼손된 것을 상당수 볼 수 있었다. 자연적인 훼손 외에도 농경지 개간과 민가 확장 등으로 문화재가 훼손되고, 관리부실을 틈타 도난·반출된 경우가 많았다.

이제는 절터가 가진 다양한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는 계기가 마련돼야 한다.

먼저 당국의 노력이 필요하다. 정부와 불교계 유관단체, 전문가들이 힘을 모아 정책입안을 서둘러야 한다. 사지보전정비위원회를 구성해 5400여 절터 중 시급히 보존 정비돼야 할 절터나 활용성이 높은 절터를 선정해 정비활동에 나서야 한다.

절터 보존과 관리는 연관된 지역 생활과 분사에서 맞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옛절터의 대부분이 국유지이기



무단반출돼 건물자재로 사용된 영주 여류리 한절골사지 연꽃무늬 좌대



나무 뿌리로 인해 자연적 훼손이 진행 중인 예천 덕봉사지 탑재



보수과정에서 발부분이 손으로 붙여진 나옴리사지 석조여래입상

전국 절터 5400여 곳

문화재 가치 높은 유물 많아

국민인식 부족에 훼손 심각

사지보존 박물관·기금 조성해야

나 사유지이기 때문에 불교계에서 직접적으로 나서기에는 한계가 있다. 정부는 문화재보호기금법의 민간경상보조를 통해 기금을 지원해 불교계와 함께 중요 절터부터 복원해야 할 것이다.

국민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사지보존박물관 건립이 대안으로 꼽힌다. 사지보존박물관은 국민들에게 절터가 갖고 있는 역사성과 당시 시대와 지역적 특색이 절과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알리는 자리가 될 것이다. 또 박물관 내 전문 보존관리시설을 비롯해 연구시설이 들어서 관련 연구역량을 한 단계 높일 것이다. 절터에 소재된 문화재를 보존하는 역할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불교계도 절터에 대한 인식을 새로이

해야 할 시점이다. 옛절터를 단순히 버린 절터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시 찾아가 하는 문화가 자리해야 할 것이다. 복원 가치가 있는 절터의 복원 뿐만 아니라 옛 절터에 얽힌 역사를 활용한 성지순례 등도 진행할 만하다.

종단에는 사찰은 많지만 역사적, 문화적 가치를 지닌 사찰은 부족한 상황이다. 불교계에도 옛절터 보존은 향후 다양하게 불사를 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한때 스님들이 부처님 법을 전하기 위해 수행하던 곳을 후세에 알린다는 사명을 갖고 이번 사지조사에 임하고 있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2013년 '불교문화유산 보존 정비 종합계획'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그동안 조사 범위에서 벗어나 있던 근현대 문화재에 대한 기초조사 확보가 '근현대 불교문화유산 목록화' 사업으로 진행되며 '사찰문화재 일제조사' (2002년부터 2017년까지 시행)와 '전국 사지 조사' (2010년부터 2015년까지) 등 중장기 사업 또한 지속

진행된다.

사찰문화재 일제조사는 2013년 전국 사찰에서 새롭게 발견된 문화재에 대한 보강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2014년부터는 전국 사찰 소장 경관조사사업이 실시하는 등 기존 사지조사에서 소장 문화재 조사로 범위가 확장될 예정이다.

2013년에는 울산, 경남, 전북, 강원 지역을 중심으로 600여 개 사찰에서 사지조사사업이 실시되는데 특히 비저장소 문화재가 있는 사지, 훼손 우려가 있는 사지가 우선적으로 조사된다.

사지조사사업은 흔적이 없어진 불교성보를 다시 살리는 일이다. 불교문화재연구소는 사지분포와 현황확인 조사를 통해 문화재청과 정부에 이를 보고하는 한편 보존 정비비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논의해 불교성보를 보존하고 활용하는데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



불교문화재연구소 소장 각림 스님

생각해봅시다

출가·열반절, 부처님 법대로 살고 있는가

불교의 4대 명절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탄생, 출가, 성도,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는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특히 3월 19일은 부처님 출가일이고, 26일은 열반일이다.

<선가귀감>에서는 불교의 '처음과 끝'인 출가와 열반의 의미를 이렇게 적고 있다.

"출가하여 승려가 되는 것이 어찌 작은 일이라. 편하고 한가함을 구해서가 아니며, 따듯이 입고 배불리 먹으려고 한 것도 아니다. 나고 죽음을 면하려는 것이며, 번뇌를 끊으려는 것이고, 부처님의 지혜를 이으려는 것이며, 삼계(三界)에서 뛰어나 중생을 건지기 위해서인 것이다."

사실 부처님의 출가는 불교와 교단의

시작을 의미하고, 열반은 완전한 해탈의 조건과 적멸의 성취로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부처님의 출가수행이 없었다면 후대에 불교가 형성되지 못하였다. 또한 완전한 열반의 모습이 없었다면 무상과 무아의 진리를 있는 그대로 중생들에게 일깨워 주지 못하였을 것이다.

올해 조계종 포교원은 '참회 발원 정진 및 범종도 승보공양 실천운동'을 선포했다. 신도들이 올바른 수행생활을 할 수 있도록 참회하고 발원·정진하도록 참여를 독려하고 재가자가 스님들의 출가에서 열반까지 책임지는 21세기 승보공양운동을 전개해 나갈 방침이다.

3월 19일 조계사 대웅전에서 열린 '출가·열반절 임재 및 선포법회' 이후 8일 동안 총무원, 포교원, 중앙선도회, 승려

복지회와 각 사찰들을 중심으로 108배 참회 발원 정진 법회 봉행한다. 이를 통해 출가자들은 물론 불자들 스스로 '수행'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일깨운다는 데 포교원의 복안이다.

전국 주요 사찰들도 종단 기조에 맞춘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출가열반절을 가리고 있다. 이전에는 개별 사찰에서 추진해오던 출가 열반절 행사가 종단 전체의 정진 주간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이다.

이미 2000년 초반 불교방송이 '출가 열반 정진 주간'을 추진한 것을 필두로 조계종 포교원은 2002년 '출가열반절 108 참회발원정진 기간'을 선포하는 등 일상적인 수행문화 형성에 일조했다. 출가열반절은 신타르다 태자의 출가

정신과 부처님의 열반의 의미를 되새기며 올바른 수행문화를 만들어 갈 필요가 있다. 또한 참되고 진실한 참회를 통한 일상적인 신앙실천에 대한 결의를 다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출가일에 1일 출가 혹은 단기출가를 체험하도록 유도하고, 열반일에는 부처님의 삶을 회고하고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는 기회로 삼는 등 일상 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부처님께서 "자신을 등불로 삼고 진리에 의존하여 깨달음을 얻을 것이며 다른것에 의존해서는 안된다"는 유훈을 남겼다.

이렇게 살고 있는지 자신의 삶을 반추해 볼 때이다. 신종일 기자

社說

조계종 법인법 제정은 시대적 과제

현재 조계종과 관련 법인은 재단이 95개, 사단법인 111개,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법인들을 포함하면 그 수치는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상황에서 조계종 소속 승려나 사찰이 출연한 법인들을 종단에 등록해 관리하는 법인법 제정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법인법 제정은 2011년 3월 제186회 중앙종회 임시회부터 추진된 것이다. 당시 주요 법인들은 이사 추천과 소속 사찰 주지 스님들의 인사와 관련해 운영권과 인사권이 침해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그로부터 2년, 총무원은 법인법 제정 수정안을 내놨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종단은 법인의 재산과 운영권 관련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을 것을 명시했다. 선학원과 대각회 등과 문제가 됐던 조항에 대해서는 △법인 사찰 주지는 이사장 임명 후 총무원에 보고 △선학원 이사의 1/3은 종단이 추천하되 추천하는 법인 연고 사찰 승려로 하는 등 완화된 법안을 내놨다. 또한 선학원에 대해서는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문제 사항을 조정할 것을 명시했다.

사실 법인 소속 스님이 사찰을 설립했음에도 종단에 등록하지 않고 법인 산하 뒤 조계종과는 무관하게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법인이나 법인 산하의 사찰들이 종헌 중법 체계에 편제되도록 하는 최소한의 기준과 절차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일부 법인들의 반대와 우려도 있다. 하지만 해당 법인과 구성원이 종도인을 확인하는 기본적 기준과 절차로 법인법을 생각한다면 반대만 할 것은 아니다. 종단에서도 '법인의 재산·운영권 관련 등 고유 권한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누차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삼보정체 망실과 사유화를 막기 위한 법인법은 '시대적 과제'다.

불교방송 내용 슬기롭게 해결되길

불교계의 유일한 공중파인 불교방송이 조용하지 않다. 성진 스님 등 7명의 불교방송 진행자 스님들이 3월 13일부터 순차적인 방송 중단을 선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유는 승가를 모독한 불교방송 이채원 사장이 물러날 때까지 방송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또한 스님들은 3월 21일 오후 2시 불교방송국서 '불교방송 정체성 회복 기원대회'를 대규모로 봉행하고 "이채원 사장의 참회와 사퇴 및 이사회에 결단을 재차 촉구하겠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불자들의 마음은 착잡하기 그지없다.

불교방송은 한마디로 대형사찰이나 다른 없는 중요한 한국불교의 전파매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만큼 불교방송이 우리 한국 불교에 미치는 영향은 클 수밖에 없다.

실제로 지난해 3월 첫 선을 보인 불교방송 경전 문자서비스는 1년만에 유료회원 2만명에 육박할 정도로 큰 성과를 낸 것도 그 증거 중 하나다.

그러다보니 이번 같은 내용이 밖으로 확대되는 것은 한국불교의 망신이다. 속사정이야 어떻든 불교방송의 현 상황은 회사의 성장 발전에 치명적이 될 수 있다. 가뜰이나 방송광고 시장의 환경이 다매체 다채널시대에 돌입해 상업성이 결여된 종교 방송은 위축되고 있는게 현실이다.

다시말해 팔로팔로 합심해도 현실을 헤쳐 나가기 어렵지 않다는 얘기가. 실제로 불교방송 광고매출은 1~2월이 비수기인 점을 감안하더라도 출고 있다.

그래서 더욱더 불교방송의 잠음은 밖으로 새나가지 않게 빠른시일내에 슬기롭게 해결돼야 한다.

그것이 곧 불교방송이 회생하는 길이며, 더 나아가 한국불교가 사는 길이기 때문이다.

탈 종 공 고

• 사찰명: 오봉사
• 창건주: 김태안
• 주소: 경상남도 창원시 양곡동 산 42-8

위 사찰과 창건주는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법하

탈 종 공 고

• 사찰명: 송학사
• 법명: 도성
• 주소: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이동 662-3

위 사찰과 위인은 귀 종단의 중지중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3년 3월 20일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타고난 자신의 운명(運命)인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키고,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일까?”

책자 내용 ———
 * 사주명리학(사주팔자술)이란 무엇인가?
 * 사주팔자(四柱八字)를 읽어 낼 수 있는 비결(秘訣)이 있다
 * 한해의 사주팔자(四柱八字)를 개선(改善)시킬 수 있는 방법(方法)은 무엇인가?
 * 부록

“영가들이 확실하게 천도되는 비법(秘法)이 수록된 책자”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격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 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요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책자 안내 ———

① 영가천도의 의미와 영가천도 의식에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
 ② 인간의 길흉화복과 건강장수를 좌우하는 영가들의 영향력!
 ③ 영가천도는 왜 필히 해주어야만 하는가?
 ④ 태어날 때의 천도가 왜 중요하며, 우리에게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⑤ 영가들의 영향으로 장애를 받게 되면 어떠한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⑥ 조상대대 친족, 연족 인체지영기를 모두 확실하게 100% 천도시킬 수 있는 요법은 무엇인가?
 ⑦ 특별천도제에 사용되는 방법은 무엇인가? 각 방편들의 내용 설명 및 사용방법
 ⑧ 집안에서 하는 영가천도 기도 방법
 ⑨ 특별 천도제를 지내고 나면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들의 예(例)
 ⑩ 영가들의 특별천도제를 지낸 후 수행생활은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어지는 것이 가장 좋은가?
 ⑪ 불자들이 알아야 할 기도의 의미와 소원을 이룰 수 있는 기도방법
 ⑫ 꿈이란 무엇인가? 누구나 쉽게 풀 수 있는 108가지 꿈해몽법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④ 팔괘의 상징에 대한 설명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⑨ 팔괘만다라 액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화해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상담문의 및 책자 신청 ☎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